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이다
(사권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발행인: 대한예수교 중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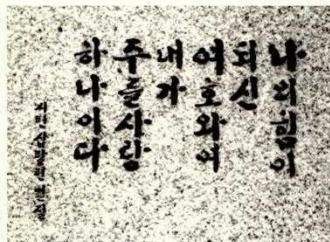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성호 편집국장: 조성근

교회 기관 조직 변경

한 몸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위원장협의회 등 신설 · 교육위원회 분리 개편

교회 5대 목표 중 지역사회 봉사는 '이웃 사랑'으로 표기기로



교회는 지난 6월 당회를 통해 현행 교회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한 작업과 교회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구조조정한 작업을 위해서 7인의 장로로 구성된 교회규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자생 장로)를 발족시킨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지난 9월말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개정 및 구조조정한 작업을 진행시켜왔으며 당회는 지난 주 14일(수)에 있었던 임시당회를 통해 조직 및 담당 업무 변경안, 총현교회 회칙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급변 임시당회에서 통과된 조직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총 5개항목으로서 위원장 협의회 신설, 상근기획실(과) 운영, 교육위원회 분리개편,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 조직, 비상재해구호봉사대 조직 등이다. 이중 주창장 협의회는 당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하여 기획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별로 계획된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위원회간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조직으로서 당회의안 심의기구를 역할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상근 기획실(과) 운영은 기획위원회 산하에 있는 각 위원회와 부서들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 예산심의, 사업추진평가 등의 업무를 좀 더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위원회의 분리개편은 현재 운영되는 교육위원회를 각 연령과 부서별 특성에 따라 3개 위원회로 나누어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1교육위원회는 탁아부를 포함하여 영아부에서 중등부까지, 제2교육위원회는 고등부로부터 대학부와 청년1·2부까지, 그리고 제3교육위원회는 장년부로부터 소망부, 신혼가정부, 사랑부, 예비다부, 영예예배부, 그리고 새가족부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과거에도 교회는 교육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한 경향이 있었는 바,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각 부서별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

회전체의 목표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교육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각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 조직을 두어 활동역량은 일꾼들을 통해 각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발전해갈 뿐 아니라 사역의 지속성을 이루도록 고려한 것도 금번 당회의 주요결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비상재해구호봉사대를 조직하여 지난 여름의 수해와 같이 급작스럽게 닥치는 비상사태 등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한 것은 실질적인 이웃 사랑을 위해 한 걸음 앞서는 지혜로운 결단으로 평가된다. 한편, 그동안 교회의 5대 목표 중 다섯번째 항목이었던 '지역사회 봉사'를 성경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이웃 사랑'으로 표기기로 한 것 역시 교회의 목적에 걸맞은 적절한 결정이었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구조변경 및 회칙 개정의 심사숙고과정을 통해서, 또한 전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됨과 구체적 실천현실을 통해서 총현교회가 머릿돌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도록 모든 성도들은 힘써 기도하고 동역해야 할 것이다.

군전도회 전방에 세워지는 십자탑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밝혀

군전도회는 지난 15일(목)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 있는 21사단까지 올라가 십자탑 준공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이곳에 세워진 십자탑이 강병들뿐 아니라 북한 병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역자 인사

당회는 김연석 전도사(사건, 1953년 생)를 본교회 여전도사로 청빙기로 했다. 김 전도사는 그동안 본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여 찬양대와 교회학교, 여전도회 등에서 봉사해왔고 서울신학교 여교역학과 신학과 등에서 공부하던 중 올해 말로 졸업을 앞두고 있다.



명에 달합니다.

금요찬양집회에서 주님 은총을 나눌 성도를 기다립니다

지난 석 주 전부터 금요찬양집회에서 특별한 순서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간증' 시간입니다.

이미 중등1부 교사인 강영희 집사와 교정전도사인 박양덕 전도사, 그리고 대학부 둘째계 등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하였던 바, 예배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히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간증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6면에 관련기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위원회 지도인 박경한 목사(11교구 담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부 가을 수련회 신령한 예배 위해 뒤에서 힘쓰는 일꾼들 10월 20일 경기 이천에서

주말마다 차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모인 차량부가 오는 10월 20일 가을수련회를 가진다.

이홍성 목사를 강사로 하여 다너오게 되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성숙한 성도'이다.

차량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성숙한 자제로 성도들을 섬기고 날로 복잡해져가는 주일 주차문제뿐 아니라 특히 장안 주차장 등 곳 주차장의 어린이 공원과 작업에 따라 확보하게 된 대로변의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금번 수련회를 갖는다.

한편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차량부 일꾼들의 지사를 잘 따라 주어 주말마다 원만한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하겠다.

교정전도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정전도회는 10월 29일(목)에 순천교소에서 대강당집회를 가지기로 하고서 금번 행사 중 사용하게 될 키보드가 없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뜻이 있으면 성도님이 계시면 교회 앞으로 지정헌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소년원 매주 토요일을 위해 차량을 운행해 주실 차량봉사자를 기다립니다. 12인승 봉고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 중 봉사해 주실 성도님도 교정전도회(갈릴리움 뒤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영성훈련

20일(화) 8교구
22일(목) 5교구
23일(금) 17교구

'98 메시야 연합 찬양 연습 수백의 입술에서 울려나를 할렐루야! 10월 25일 신촌 미감

을 10월 25일 성탄절 저녁에 드려질 성탄절 찬양예배를 위한 연습이 지난 9월 20일에 시작된 이후로 매주 일 저녁 찬양예배 후 약 40여명의 대원들이 모이는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번의 연주는 최고의 연주를 하리라는 기대를 받던 연습이 지난 9월의 100% 출석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습량의 70% 이상을 감당한 대원들만 연합찬양대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습 일정을 감안하여 메시야 찬양 참가 신청은 10월 25일까지 반을 예정이오니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찬양위원회실이나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나누새를 입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참가신청 대원은 총 600



김 창 인 목사

선민의 갱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29:17-24)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생을 당하는 때도 있으나 이런 고생은 잠깐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생하는 기간과 영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책망을 받는 중에도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한이 어떠합니까

“미구에 …”(17절)
“미구에”라고 17절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잠깐 후에,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잠시입니다. 사람은 70년이나 90년을 살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년이 잠시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여 다, 사람의 생애에는 역사가 길어 보어도 하나님의 생애에는 잠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생을 당하는 때도 있으나 이런 고생은 잠깐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생하는 기간과 영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땅에서 범죄하여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차지하여 당당하게 산다고 하여도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시간에 지옥고생을 시작됩니다. 죄를 범한 것이 며칠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애에는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은 어찌 있겠습니까.

2.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 자연 만물이 유쾌해진다 고 하였습니다.

“미구에 레바논이 기쁨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쁨진 밭이 삼림으로 어귀이 되지 않겠느냐”(사 29:17)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자연 만물이 복을 받습니다. 레바논은 수풀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레바논의 수풀이 없어지고 기쁨진 밭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자연 곡식이 열어나갈 것 같은 기쁨진 밭이 삼림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대서 보니까 레바논은 자연 곡식이 마치 무성한 삼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자연 만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먼저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 만물에게 복을 주시어 사람이 충분히 먹고 입고 살 것을 준비하십니다.

(2) 사람이 소생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① 육체보다는 먼저 속 사람이 소생합니다.

“그 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둠과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18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여 지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심이니”(24절)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의 귀머거리란 육신의 귀가 먹었다는 말도 되지만 더 깊은 뜻은 남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영적으로 소생하여 바깥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바다의 물결소리만 듣고도 은혜를 받도록 속 사람이 지혜의 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 소경입니다. 모든 이치에 대하여 분별이 없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못 한 총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면 자신의 죄를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몸이 튼튼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 사람인 신 영인격이 사람다워집니다.

② 기쁨이 생깁니다.

“겸손한 자가 의화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19절)

첫째로,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 합니다. 겸손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말합니다. 범한 죄가 가슴아파 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까지 결심한 다음에 실행할까 보아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짓말한 것과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뭇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제만 하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도 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사람이 무서워하면 적이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 어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었

습니다. 다니엘이 즐거움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떨 줄 아는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속 사람이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겉 사람도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둘째로, 빈핍한 자가 즐거움을 누립니다. “빈핍한 자”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하고 지식이 없어도 가난하고 권세가 없어도 가난합니다.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대만 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입니다.

그러면 빈핍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불의를 행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자는 남이 보기에 빈핍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기쁨이 내십니다.

요셉이 남의 집 머슴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오니라” 하시니 기쁨이 내시니 자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즐거움을 나누어 주고 굶어 죽을 만민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고 즐거움을 나누어 주는 자님이 되었습니다.

③ 사람이 소생함을 받는 이유는 불의한 자가 심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되었으며 죄악의 기회를 얻되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20절) 강포한 박해자, 조롱하는 경만한 자, 악의 기회를 얻되던 자, 선한 사람을 고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상에서 쓸어버리시니 복받은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날이 성도들이 복받는 날입니다. 악과 죄악이 자랍니다. 가짜 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에 악곡은 여름과 추위가 겹쳐지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 때가 되면 타락하여 악곡은 창고에 간직하고 추위가 오는 불에 타버립니다. 악을 행하던 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강포한 자입니다. 이는 악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악수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후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면서 유대민까지 섬멸시키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둘째, 경만한 자입니다. 거짓 종교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돈과 명예에 끌려서 하나님의 원수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만한 자들입니다. 셋째, 죄악의 기회를 얻되던 자입니다. 이는 불의한 정치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돌보아 주는 척하면서 자기의 주머니나 채우며 슬금슬금 악약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죄악의 기회를 얻되던 악의 종살이를 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은 돈을 많이 준 악인에게는 의인이라고 판결하여 소승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의인을 패소시켜 억울하게 합니다.

(3) 아담 자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담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아담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22절)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조상의 우상 숭배에서 건지시고 율무와 환난에서 구속하신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아담이 너무나 두렵게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담 족속을 위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족속은 이전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선택하여 놀라 자책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고생이 긴가? 하며 원망하지 말고 잠시 후에 누릴 거룩한 복을 기다리며 피로되도 억울해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자연 만물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만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데 겉 사람보다 속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 나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복받은 날이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저주를 받는 자를 가운데 세우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수행하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 신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록 목사

교만한 자

(하박국 2:4)

“어떤 경우라도 교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거절하게 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제한적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세상문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형에서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항상 대문자 ‘I’로 표기되는데 이 또한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믿도록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자주 “당신이 해냈어요!”라든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교만의 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렘 24).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의 본질인 교만은 점점 팽창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계속 신실함으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나 외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내적인 변화로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한국적인 신화를 하나님에게서 자란 궁극적인 신비를 자를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교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만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교만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활 속에 뿌리박은 교만

물론 사람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인 만큼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라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요구사항을 얻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듯 응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주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대항하게도 하며, 심지어는 주님을 부리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니다. 교만은 언제나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주 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를 찾아볼시다. 우리는 백화점에서 줄을 설 때도 어찌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외에도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도록 소망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년도 더 넘은 작고 낡은 차와 최신형 고급 차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러한 비교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교만의 두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과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을수록, 더 많이 공부할수록 그들의 교만은 더욱 높아집니다. 교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꿈꾸던 정상에 올랐을 때 그것을 경이로 여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꿈꾸어 생각한 보상이요, 과연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헛된 정상에 오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다나아가,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니까? 주안에서 계속 기뻐하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분노하십니까?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도 사실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

어떤 경우라도 교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본명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거절하게 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제한적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교만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성장한 심령은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잠 3:34).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방해하는 일에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형용하노라 자음을 받은 물건이 자은 자에게 어찌 누가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노뇨?”라고 했습니다. 만약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릇을 그 뜻대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피조물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교만

또한 교만은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의 지식은 거짓된 것이며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은 쓴것을 달고 쓴 단것을 쓰게 받아들이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이러한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칭하며 하려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단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교만은 언제나 선한 것을 대적합니다. 교만은 소란자들로 누설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진리를 찾기 싫을 뿐만 아니라 감정 또한 부패하였습니. 교만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영혼은 허무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인내하며 시험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깊은 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는 복음 듣기를 귀찮아하는 시집에 빠집니다. 교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자아를 부인하기에 자신이 너무 중요하게 다. 예수님을 순종하게 믿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기에 그가 접하고 있는 문화가 너무 빠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지식과 마음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만은 겸손과 대조됨으로 겸손의 아름다움을 더욱 잘 드러내 주는 아이러니컬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하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여러 종류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외형적으로는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겸손을 흉내낼 수는 있으나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교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늘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아를 전부 잃게 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 새 피조물로

김성록 목사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지 의롭다 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로서 우리의 교만을 깨어 달라고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어져서 새로이 자음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교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자아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교만한 자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해라 의 그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이 우리 눈에 불가해 보일지라도 항상 큰 선을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선교

양화진선교사묘지 ■ 다녀와서

선교비전 다진 선교 유적지 답사

박 경 회(선교연구원원, 청년2부)

가난의 땅에 뿌려진 외국인선교사들의 생명과 복음
그들이 왜 그토록 이 땅을 사랑했는지 ...
나도 이제 말레이시아를 향해 떠나려 한다



△ 묘지에는 생후 6일된 선교사 자녀의 무덤도 있었다.

선교연구원(평신도선교훈련원)에서는 지난 10월 10일(토)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선교사묘지로 답사를 갔었다. 4천여평의 그리 넓지 않은 공원에 500기 정도의 묘지가 있고 그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111기가 선교사와 그들의 어린 자녀의 묘였다. 최초의 피장자는 미국의 의료선교사로 1885년에 입국하여 6년만인 1890년에 사망한 헤론이었으며 그 외 우리 귀에도 익숙한 최초의 선교사들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가족묘지도 있었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던지고 사라졌다. 6·25를 지나오며 비석들엔 여기저기 총탄의 흔적들도 남아 있다. 이 땅에 그들의 삶을 바쳤으며, 이곳에 묻힌 그들의 사랑은 그 비석에 울렸을 총성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목을 메게 했다.

다독 가슴 아픈 것은 어린 자녀들의 묘였다. 자기 고국에 있었다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그 아이들이 아직 개화되지 않은 먼 이방나라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질병으로, 사고로 숨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그토록 이 땅을 사랑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주님이 먼저 이 나라를 품어주셨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품게 하셨다는 것밖에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땅을 향해.

유적지 답사는 개인적으로는 또다른 각오와 다짐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달 말경에 나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떠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열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은 내게 한 권의 선교관련자료를 통해 아프리카를 내 속에 심어 주셨으며 특히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내게 말레이시아에서 유치원 교사로서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 2년동안 어린이 사역은 물론, 주말과 방학기간동안 단기선교사역을 감당하며 미진도 종족 정당을 계획하고 있다. 현지에서의 훈련이 앞으로의 아프리카 어린이 사역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선교지 소식 - 방글라데시 이종원 형제

인타내셔널 에베에셀 스쿨에서 사역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깨은 아침(안녕하세요)?

아미 발로 아침(저는 안녕합니다).

단기선교팀원들과 함께 밟았던 방글라데시에 온차 도착하고 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지난 번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이 왔을 때 없었던 의자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땀방아 사역일을 공부하던 기억도 나서 혼자 바보처럼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곳 다카 '인타내셔널 에베에셀 스쿨'에서 1, 3학년 수학과 4, 5, 9학년 국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반 친구들과 아침마다 함께 경건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지 며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가 여기 에 온 목적이 어느 부분은 더 확실해졌고, 어느 부분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기를 기도제목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로 드리며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내외국인선교부

연중 쉬지 않고 근로자 심방하며
예수 사랑 전하는
국내외국인선교부 심방교사들

심방은 형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국내외국인선교부에는 현재 매주일 5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주일 나오지 못하고 격주로 출석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서 제적으로는 100명을 넘고 있다.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돈을 벌러 온 이들은 대개 한국에서 난생 처음 교회란 곳을 오게 된 사람들이다.

본국에 있을 때는 모르고 관심 없던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 열심히 배우고 있다. 믿음을 갖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참으로 은혜의 나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외적인 조건이 쉽지만은 않다. 국내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고 어떻게 구한 직장에서는 임금기 체불되는 것이 예사이다.

공장 기술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당장 먹고 잠자는 데 곤란을 겪게 된다. 파키스탄 출신 샤이드 포미는 지난 여름동안 걸기처럼 잠을 자야 했고, 같은 파키스탄 출신 아가는 어느 학교 야산에서 밤을 보내곤 했다.

이들은 방을 구할 경비가 없어서 그런 처지가 됐지만, 방을 구할 경비가 있어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꺼려하는 방주인들 때문에 걸거리를 전전하는 형제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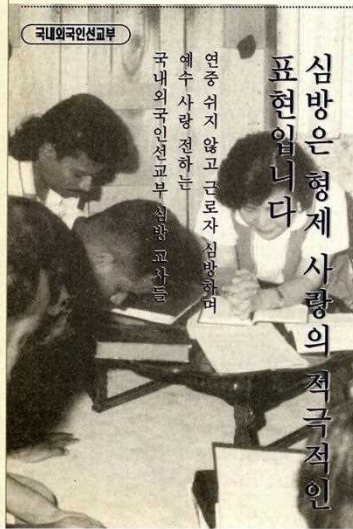
있다. 비록 방을 구했다하더라도 몇 달 씩 일을 하지 못해 결국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형제들도 있다.

이런 이들에게 교회에서 매달 나눠 주는 구제미는 그야말로 그들의 생존을 지켜 주는 양식이 되고 있다. 이들은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 거할 처소가 없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교회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외국인 형제 자매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연중 쉬지 않고 심방을 다니는 교사들이 있다. 주일은 물론 주중에도 이곳 저곳에 퍼져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필요와 처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외국인 형제들이 주일마다 담당 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 심방 교사들이 주중에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심방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교사와 외국인 형제 자매들간에 친밀감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신뢰감이 쌓이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라가게 된다.

심방은 진정 형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기에 교사들의 수고와 땅이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히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 정은(대학부 4학년)

피 위 쿼크랜드는 할렘 농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는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 어머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권능이 크시다면 제게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농구와 돈벌이에 관심이 많았던 피 위는 고등학교 시절 이미 마약거래에 뛰어들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이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계속 해서 그 일을 했고 마침내 그의 목표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님께서 그가 한 일들의 진상을 알게 된다면 무척 실망하실 것을 예상, 법을 지키며 살겠노라 다짐한다. 하지만 매력적인(?) 범죄행위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일까? 방법은 달라도 그 바탕은 올바르게 못한 돈벌이에 투자를 시작한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이다.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고, 무수한 생각 끝에 어머니

인생은 하나님에 돌아가는 경기

당신의 기쁜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가 하셨던 "키 기울어 듣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

고도수 수감자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며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다.

형기를 마친 후 할렘가의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치며,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쳤다. 다음은 그의 고백이다.

"...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였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는 경기이자, 그분의 계획하신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농구를 선택하셨던 것뿐이었다."

<가이드포스트>에 나온 'Game Plan'이란 글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따라 주지 않아 반복하여 저지르는 죄들이 많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에 빠져서 실령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영원히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다. 하지만 자책하며 쉽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도 계신다. 참 감사할 일이다.

피 위는 속된 말로 잘 때까지 갔던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지친 한 영혼을 들어 쓰셔서 한 명 이상의 영혼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역사하셨다.

당신의 인생 역시, 그분 안에서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을 아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골 2:13)

열왕기상은 재미있다

강 석 진(대학부 7학년)



열 왕기상은 솔로몬과 엘리야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상은 의외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얘기와 엘리야의 회한한 이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8:27 -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앉았습니다. 결코 성전에 매어 계시 실 하나님에 아니심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사 교의에만 매어 계시는 것처럼요.

9:6-9 - "만일 ...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끌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

드디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이 기뻐하는 분위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냉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지 않으심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건물에 매이지 않은 당당함을 보이십니다.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전이

라도 던져 버리신다는 과격한 표현도 하십니다. 또 지나가

는 자들이 성전을 비웃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다른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던져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

때 그 존재가 인정됩니다. 아무런 교인수가 많고 교회가 그 건물에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교인이 적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면, 만약 출현교 회도 그런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지도 모릅니

다. 우리 교회 교인만큼이라도 아무런 이 시대의 하나님

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발뚱뚱치려 하겠습니까.

10:9 -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 이스라엘 위에 올리고서 여호와께서 영영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위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소서"라고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한 후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하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할만한 이후에 세상은 저희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잘못됨을 '많은 사람이...'라며 전체의 잘못으로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반면 나의 잘못은 나 개인에게도 영광이겠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

아야 합니다.

12:31, 32 - "자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 자가 자기 마음대로 ... 절기를 정하고 ..."

참 편리하네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끼여다 맞춘 종교들을 열 몇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대로 존재합니다. 말씀에서 벗

어날 때는 이미 기독교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아니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8:28 -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33

- "... 뽕 밭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라고 하고", 38 - "아에 여

호와와 불이 내서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엘리야. 몸을 상하게 고

행을 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 뽕 밭에 물을 담아

꽃기를 세 번이나 했지만 그 물까지 태우시는 하나님. 아무

튼 이런 멋진 승리를 했지만 쫓기는 신세가 되지요. 43절에

있는 말씀이 새롭네요. 큰 비가 있으리라 했는데 일곱 번이나 갔어도 아무 변화가 없지요. 한두 번 하다 마는

우리의 진득하지 못한, 일곱번에도 겨우 순탄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지요. 실망할 만도 한대.

22:8 -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14 - "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그것을 무채절하는 것은 종교의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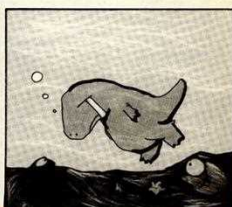
락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대해 바른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말입니다. 과거의 우리나

자 모습을 볼 때 잘못에 대해 침묵했던 결과들을 지금 경험

함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세상에 대해 이런 멋진 말을 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배성 준(대학부 2학년)

교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서울역 전도 10년을 돌아보며

발길질의 횡방을 넘어서는 복음의 찬송으로

서수길(청년2부)



자살의 순간을 넘기게 한 복음의 외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찬양으로 서울을 덮고도 남을직한 서울역 모임

무척이나 바쁜 거리. 대한민국 사람이란 한 번 정도는 걸어왔을 거리. 이 거리로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일을 마치고 지친 어깨를 추스리며 청년2부의 몇몇 회원들이 모여든다. 광야 같은 이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며 목놓아 외치며 찬양하는 젊은이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삿대질을 하며 비웃기도 하고 다름을 일으키려고도 하며 술에 취한 노숙자들은 기타를 발로 차며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달래가며 찬양을 계속하고 전도지를 전한다. 그러다 보면 서울역 관리인들이 와서 전도를 그만하고 흩어질 것을 강요한다. 지나가는 누군가가 서울역에서 전도를 못하도록 고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도 한쪽 구석으로 옮겨 계속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 믿음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 앞에 유로한 보따리를 두고 사라지는 이복모를 붙들, 전도지를 받으며 "할렐루야! 힘내세요!"라는 한 마디 건네주는 분들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다. 찬양할 때 옆에 있던 노숙자 중 한 사람이 동전 몇 개를 내밀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 전부입니다. 받아주세요!"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고마워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개인전도, 찬양전도를 9시까지 마치고 전도대원이 모이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한 형제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 서울역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 혹시 사고

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그 형제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60대 정도 되신 분께서 약을 먹고 죽을까 하며 망설이고 있어서 그분께 하나님을 이야기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내일 먹을 밥 한 끼 기약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 그렇듯 생존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서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가슴 저미도록 아팠다. 준

비해간 김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도 걸어갈 힘이 없으니 가져다 달라거나 전도대원식 먹을 것을 달라는 노숙자들의 하소연을 생각하면 목요일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진다. 그러나 가슴 아파할 수만은 없다. 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육의 양식, 따뜻한 자라는 마련해 주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서울역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형제요, 나의 동포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서울 전도에 참여한 지 10년이 되었다. 초창기때 만해도 서울역 전도는 활기찬 모임 중 하나였다. 매주 30명 내외의 회원이 참석하기도 했으며 공휴일에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 "서울이여 복음화되라"며 서울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치며 기도하기도 했다. 천천교회와 충무로에 있을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터를 닦아온 서울역 전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매주 10여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아니,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천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서울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찬양으로 서울을 덮고도 남을직한 서울역 모임을 위하여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집회이야기

김성관 목사님이 단 위에 올랐다. 앞자리에는 젊은 무리들이 배곡히 앉아 있었다. 목사님은 이들과 약속한 예화들러 주기를 위해 준비한 예화보따리를 펼쳤다. 웃어야 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안웃으면 망신당할까봐 걱정이라는 말에 먼저 폭소가 터졌다. 그리고 50년을 함께 산 부부 이야기를 펼쳤다. 남들이 보는 것과 실상은 항상 다르게 마련이라는 골자의 재미난 이야기였다. 그리고 골프공에 구멍이 많이 있는 이유가 설명되었다. 고난이 있어야 힘이 있다는 말씀이었다. 성도들은 유쾌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예배마무 교사들이 찬양대석 앞에 올랐다. 설립 10주년을 맞아 특별찬양을

준비한 것이다. 아름다운 찬양과 수화가 함께 어우러졌다. 정성을 다한 몸짓, 온 몸으로 외치는 주님사랑이 아름답고 거룩해 보였다.

박옥식 은퇴권사님, 그리고 이신옥, 이금오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단에 올랐다. 한복을 곁게 차려입으신 분들.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까, 모든 성도들은 감격 놀랐다. 할머니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이 그야말로 감도 고왔다. "아 내 맘 속에 참된 평화있네" "...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이 끝난 후 김 목사님은 "보통이 아니지요?"라는 말로 모든 평가를 대신했다.

간중순서는 고아들을 방문하여 공부를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는 대학부 둘째개 팀장형제나 딸이었다. 형제의 간중은 술집담백했다. 어려서 그대로를 잘 소개함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신 주님의 은을을 맛보게 했다. 성도들은 젊은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주도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의 사역도 찬히 이끌어 가시길 진심으로 간구하였다.

고동무 2학년 최윤희와 자매.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후" 병을 앓고 있는 자매였다. 온 성도들은 힘을 모아 이 자매를 주님의 긍휼과 치유의 손길에 부탁드렸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자매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소식이 들린다. 금요집회 때마다 이어지는 이러한 중보기도는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는 큰 힘과 은총이 된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간증 젊은이로부터 은퇴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노래하는 예수님 사랑



교회 소식

● 알림

1. 장학헌교 인사 / 25일(다움 주일) I, II, III, IV, V부예에 드립니다. 기도회와 성경으로 준비하시 바랍니다.
 2.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25일(다움 주일)까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 11월 1일(주일) 15:00-16:50, 11월 8일(주일) 15:00-15:50
· 분담: 11월 8일(주일) 16:00-16:50, 각 교구별 장소
· 교육장소: 교육관 314호, 307호, 310호
· 학습, 세례: 11월 15일(주일) 찬양예배시, 분당
· 유아세례: 11월 15일(주일) 15:00, 갈릴리움
 3. 장년2부 특강 / 오늘 12:30, 교육관 314호
· 주제: 50대 성도의 시대적 사역 / 강사: 김계철 목사
 4. 신학교장부 특강 / 오늘 10:50, 교육관 201호
- 모임
1. 장로 회례세례기도회 / 20일(화) 세빛교회 주, 교육관 109호
 2. 안수집회 및 안수예배기도회 및 성령강화 / 19일(월) 세빛교회 주, 교육관 109호
 3. 주일요호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리움
 4. 찬양위원회 릴레이 / 오늘 찬양예배 주, 찬양위원회실
 5. 교육위원회 릴레이 / 오늘 15:30, 당회실
 6. 전도위원회 릴레이 / 오늘 15:00, 선교관 405호
 7. 인사위원회 / 오늘 기획위원회 회의 주, 선교관 301호
 8. 행정위원회 릴레이 / 24일(목) 15:00, 총현기도원 (11:00 교회에서 출발)
 9. 학원위원회 릴레이 / 오늘 12:20, 분당 지하 110호
 10. 설립일전도회 목회기도회 / 22일(목) 세빛교회 주, 선교관인전도회실
 11. 2교구 연합 구역예배 / 23일(금) 10:30, 선종공원
 12. 교육훈련회 릴레이 / 23일(금) 18:00, 교육관
 13. 권사회 제3회 릴레이 / 21일(수) 1부예배 주,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바울 2 / 오늘 15:00, 아베크
2. 바울 5 / 24일(목) 18:30, 회광장빌(3411-4892)
3. 바울 7 / 25일(다움 주일) 교구모임 주, 교구모임장소
4. 바울 9 / 오늘 19:00, 안동미당 강제(면동동, 494-8879)
5. 바울 10 / 24일(목) 19:30, 강동해동당
(수원시 강북구 팔월, 997-4244)
6. 바울 11 / 오늘 교구모임 주, 연미부실
7. 바울 12 총회 / 오늘 교구모임 주, 교육관 310호
8. 바울 16 / 오늘 교구모임 주, 임나부실
9. 베드로 5 / 오늘 교구모임 주, 노사당
10. 베드로 7 / 22일(목) 19:30, 총현기도원
(김동 5K주요예배 출발)
11. 베드로 9 / 22일(목) 19:30, 성모면목
12. 베드로 10 / 오늘 15:00, 교육관 411호
13. 한 나 3 / 오늘 교구모임 주, 복지관 지하2층
14. 한 나13 / 오늘 교구모임 주, 사랑부실
15. 에스더 1 / 오늘 교구모임 주, 교구모임장소
16. 에스더 9 / 오늘 교구모임 주, 아베크
17. 에스더 3 / 오늘 교구모임 주, 교구모임장소
18. 에스더 5 / 오늘 교구모임 주, 복지관 지하2층
19. 에스더 6 / 20일(목) 06:00, 오정회 최정훈 목사(002-2278)
20. 에스더 7 / 오늘 교구모임 주, 교육관 205호
21. 에스더 9 / 오늘 교구모임 주, 교육관 414호
22. 에스더 10 / 22일(목) 11:00, 19대 총회
23. 에스더 11 / 오늘 교구모임 주, 연미부실
24. 에스더 13 / 오늘 교구모임 주, 탁아부실
25. 에스더 17 / 23일(금), 총현기도원
26. 루디아 2 / 19일(월) 11:00, 가빈을
27. 루디아 5 / 22일(목) 12:00, 총현기도원
28. 루디아 10 / 22일(목) 11:00, 박제민 집사(935-5565)
29. 루디아 12 / 오늘 교구모임 주, 교육관 404호
30. 루디아 16 / 22일(목) 11:00, 문학회 집사

31. 마리아 2 / 20일(화) 10:30, 갈릴리움
 32. 마리아 4 / 22일(목) 10:30, 일반회
 33. 마리아 5 / 20일(화) 10:30, 신촌가정부실
 34. 마리아 7 / 20일(화) 10:30, 유아부실
 35. 마리아 13 / 오늘 교구예배 주, 김반을
- 결혼
1. 전성문교(진국출 장로, 김정현 권사의 아들)과 신명주(신명교 장로, 이숙자 권사의 딸, 제1교구) / 22일(목) 13:00 신촌 연세대 문헌관
 2. 김두영교(김관현 씨, 최영자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김희영(김관현 장로 권사의 딸, 제15교구) / 23일(금) 13:30 갈릴리움
 3. 임형원교(임형철 성도, 한숙영 집사의 아들, 제11교구)과 박희원(박희영 씨, 유광형 씨의 딸) / 24일(토) 12:00 가평대 해당동 2층 평화홀
 4. 최광진교(최광진 성도, 김현진 성도의 아들)과 허영자(허영자 집사, 김명숙 집사의 딸, 제6교구) / 24일(토) 14:00 안산선교회 7층
 5. 이삼구교(김정순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이미경(이삼구 씨, 김계숙 집사의 딸, 제19교구) / 24일(토) 14:20 강남 남산우체집교회에서 예배당
- 별세
1. 박영익 성도(김정환 집사 남편, 제15교구 사당1구) / 12일(월) 밤 1:59 장사
- 주시 및 전례비환 변경
1. 총현(현) 전: 034-764-9617
 2. 소재목 집사, 조영일 권할 / 강남구 일원동 644-10

● 동서동남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 찬양강연회(대회를 위한)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각 교구 회당만 모임 / 20일(화) 10:00, 갈릴리움(에스더, 루디아-알지마 준비, 마리아-한복 준비)

총현 중보의 창

1. 김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교회회가 조직변경과 회칙개정안 확정에 따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이루어주소서.
3.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가운다인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 맡겨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를 맺게 하소서.
4. 오늘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경건으로 총현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5. 새백기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이어지게 하소서.
6.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니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7. 매우 수고부메배 후에 있는 지역장, 부지역장 훈련과 수료2부예배 후 진행되는 남성도구역장순례를 통해 교구일꾼들이 힘있게 세워져서 각구역이 밝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8. 교회 5대 목표가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전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젊은이들의 신앙이 확고하고 분방하게 세워지기를 이들을 통해 교회의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소서.
9. 12월 25일(금) 성탄절 찬양예배를 위한 뜻깊은 찬양 연합연습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뜻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소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589	이현석	1	청년2부	1600	김미영	1	대학부	1611	김종구	16	소망부	김희옥(16)		
1590	김형진	2	청년2부	1601	김정환	2	대학부	1612	이윤재	19	고등부			
1591	전재희	2	청년2부	1602	김승희	19	대학부	1613	오세종	19	대학부			
1592	황정석	3	배도부	1603	김진주	6	대학부	1614	배지현	19	대학부	오상균(2)		
1593	황준	3	고등부	1604	최현실	19	청년1부	1615	유복선	19	청년1부	윤세원(7)		
1594	권민도	4	청년1부	1605	류산준	19	청년1부	1616	한재현	19	청년1부			
1595	김영옥	4	청년1부	1606	유태호	19	청년2부	1617	양석진	19	청년1부			
1596	이한송	6	청년1부	1607	김광록	1	청년2부	1618	정광희	17	대학부			
1597	유영우	9	청년2부	1608	조승현	4	청년2부	1619	이상용	19	예배대부			
1598	신정훈	9	청년2부	1609	김정아	6	청년2부							
1599	양승호	13	청년2부	1610	정호석	19	청년2부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내 인생 비취 주는 복음의 지도

임 통 개(1교구)

집 안의 대소사 때문에 먼 길을 운항할 때면 국도를 이용할 때가 더러 있다. 국도를 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뾰가 속도해 보이는 고속도로보다는 상쾌한 공기를 입을 벌려 마음껏 마시면서 말로만 듣던 지역들을 지나면서 시골의 생활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국도가 더욱 흥겨움을 준다. 이 먼 여정을 갈 때면 내 손엔 언제나 들려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갈 길을 지칭해 주는 지도이다. 처음엔 지도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남편의 도움으로 참고가 많이 되고, 재미있게 목적지를 찾이된다.

나의 인생 여정도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비취 주는 복음의 지도가 있기에 그 빛을 따라 가고 싶다. 이 땅에 출생하여 교사로 교육을 통해 지식은 얻었고 교과서 읽는 나그네 삶을 진정으로 인도해 주는 길과 리더십이며 생령 자치되는 말씀이 열려 계시니 이 얼마나 행소로 감사한 일인가. 모든 사람에게 복되는 말씀을 깨닫고 있어 받아 생령길로 갈 수 있다니 주님의 은혜는 신비하며 오묘하심은 어찌 줄은 말로 표현할 바 할 수 있으리요. 오늘도 성경읽기 시간을 놓쳤을 때 주님 앞에 죄송스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드린다.



10월 25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임나야열전찬양

(지휘/장기법, 반주/김종원)

〔찬양곡목〕

- 주의 영광
- 깨끗하게 하소서
- 할렐루야

◆ 3부예배

할렐루야찬양대

(지휘/김현철, 반주/조희영)

〔찬양곡목〕

- 주의 영광을 내가 들으니
- 그 크신 하나님께의 사랑
-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감동할 줄 모르는 기쁨

◆ 4부예배

이만찬양대

(지휘/이수철, 반주/최현실)

〔찬양곡목〕

- 헌신의 기도
- 마음 다해 찬양
- 이슬이 우리 주께 아니 피어오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김동화 목사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현 김동석

김광록 김현철 김재철 김재철

전현민 조종환 조종환 김동화

김재현 김진성 김현철 사경진 이숙자

■ 협동목사

윤영대 박학용 노봉린

■ 선교교사

이종환 안석철 김영대

■ 교육목사

이준경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정자

이태주 김경자 유옥인 최지혜 손비희

김복자 신동자 유민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옥 현영준 박종화 최희자 김명숙

■ 교정전도사

박지현 김진성

■ 교육전도사

박지현 김진성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현 김동석

김광록 김현철 김재철 김재철

전현민 조종환 조종환 김동화

김재현 김진성 김현철 사경진 이숙자

■ 협동목사

윤영대 박학용 노봉린

■ 선교교사

이종환 안석철 김영대

■ 교육목사

이준경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정자

이태주 김경자 유옥인 최지혜 손비희

김복자 신동자 유민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옥 현영준 박종화 최희자 김명숙

■ 교정전도사

박지현 김진성

■ 교육전도사

박지현 김진성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현 김동석

김광록 김현철 김재철 김재철

전현민 조종환 조종환 김동화

김재현 김진성 김현철 사경진 이숙자

■ 협동목사

윤영대 박학용 노봉린

■ 선교교사

이종환 안석철 김영대

■ 교육목사

이준경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정자

이태주 김경자 유옥인 최지혜 손비희

김복자 신동자 유민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옥 현영준 박종화 최희자 김명숙

■ 교정전도사

박지현 김진성

■ 교육전도사

박지현 김진성